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안태영선교사 기도편지

2024년1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0)

툴루즈 한인교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툴루즈 한인교회는 여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동안 많은 한인들이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났지만 툴루즈에 오는 한인 유학생들의 숫자나 한국교민들의 숫자가 급감하였습니다. 한때 70여명이 되었던 교인들의 숫자가 1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교회 재정 뿐만 아니라 주일예배 참석 숫자가 너무 줄어서 남아 있는 교인들도 갑작스럽게 썰렁해진 분위기로 인해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한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남아 있는 교인들이 다시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교인들도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20여명이 되었고 최근에는 한국 유학생이 툴루즈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지 6개월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진행된 세례식이어서 온 교인들이 함께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20대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이 드물다고 하는데 머나먼 툴루즈 땅에서 청년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은 놀랍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툴루즈 교회는 교회의 크고 작음에 그리고 교인수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툴루즈 교회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례식과 툴루즈교회 교인들, 성탄절 주일학교 아이들



시리아 난민과 자원봉사자들 송년모임



2023년 12월 마지막 카페 모임을 위해 모인 청년들

시리아 난민 압둘라, 우르드

시리아에서 도착한 압둘라, 우르드 가정의 프랑스 생활이 이제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가정의 프랑스 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행정절차와 불어수업, 병원치료등을 지원했습니다. 심한 당뇨증세가 있었던 압둘라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교통사고로 안면 마비 증세가 있었던 우르드는 2회에 걸쳐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이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들은 무슬림이지만 본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기독교인임을 알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알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

한국디저트 카페 사역

카페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이 프랑스 청년들을 위해 오픈한 한국디저트카페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월1회 있는 이벤트 행사때에는 100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카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유럽은 3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과 계속 증가하고 있는 난민으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교의 길을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

1. 툴루즈 교회의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서
2. 프랑스에 정착하는 난민들을 위한 사역이 더 확장 될 수 있도록
3. 프랑스 개척교회와의 협력사역들이 확장 될 수 있도록
4. 한국 디저트 카페가 더 성장하여서 프랑스의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5.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